

국민건강증진 위한 여섯 번째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

주민들의 적극적 호응으로 순조롭게 진행

“그 때 그 시절, 기생충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요즘도 기생충이 있어요?”, “2천년을 앞둔 이 마당에 웬 기생충?” 하며 외면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20~30년 전쯤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기억은 아니지만 기생충도 하나의 추억거리일 수 있다. 봄·가을이면 대변을 받던 일이며, 미처 대변을 받지 못해 벌을 서던 일,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구충제를 받아 먹던 일 등등.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던

60년대, 정부와 관련학자,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들은 서로의 힘을 모아, 기생충 검사와 구충제 투약, 보건교육에 최선을 다했었다.

『이렇게 뜻있는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기생충퇴치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던 1971년, 국민의 기생충 감염 현황과 감소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기생충관리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국민건강증진의 지표로 삼기 위한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매 5년마다 실시되어 이번에 여섯 번째로 실시되는 이 실태조사 사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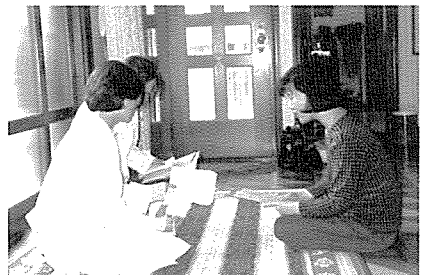
우리 나라 기생충 관리의 역사와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실태 조사의 단장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 회장의 설명처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내무부와 통계청 등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 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기생충 감염률은 84.3%(1차), 63.2%(2차), 41.1%(3차), 12.9%(4차), 3.8%(5차)로 빠르게 감소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생충관리사업이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실시된 결과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생충관리 성공 사례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6



▲ 성정웅 사무총장 (우측) 박기준 보건정책과장(중앙)이 실태조사 지역을 방문. 실태조사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기록카드 작성

국민건강증진에 있어 이처럼 의미있고 역사깊은 실태조사사업이지만, 기생충 감염률이 현저히 저하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굳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대변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건협이 일선 조사단원들은, 『일단 대변받기를 꺼려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실태조사사업의 의미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몇번이고 찾아가야 겨우 가검물을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의 건강이 기생충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던 일이 그렇게 먼 옛날은 아닌 듯 한데, 아무튼 더 이상 기생충검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인지 낮에는 비어있는 집도 많고 농촌주민 등도 논밭에 나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로 새벽이나 저녁에 방문해야 하기도 하구요.』라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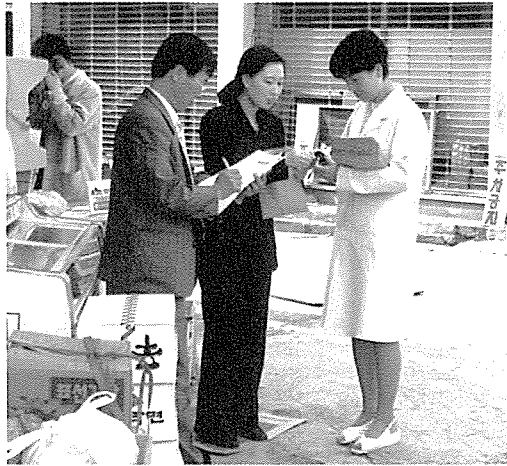
그러나 그들은,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면 적극 협조하고자 노력하는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며, 국민건강증진에 있어 의의가 큰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단 한가구도 빼놓지 않고 가검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한다.

총 203개 조사구의 13,328가구 4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 6차 전

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사업은, 조사지역별 인구조사와 요도 확인 후 가구별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6월 말까지 가검물을 수집하게 된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검사와 통계작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5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3.8%의 감염률이 0%까지 저하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충과 간흡충 등의 감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기생충관리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기초 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 성정용 사무총장과 보건복지부 박기준 보건정책과장은, 『성공적으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주민의 적극적 호응, 조사단원들의 최선의 노력, 그리고 정부와 관련 학자 등의 아낌없는 지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라며,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가치있는 사업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검사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태조사 단원들의 가검물 수집



이러한 모두의 바램대로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성실한 사업 수행과 정확한 검사 등을 독려하고 조사단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임한중 회장, 성정용 사무총장, 박기준 보건정책과장, 기생충 관련 학자, 건협 임직원 등이 현지에 직접 출장을 나가 가검물 수집에 동참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시작과 끝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의미있게 시작되어 목적대로 기생충 감염률 저하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실태조사사업이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72